## 우치메 만

이키의 동쪽에 있는 우치메 만은 예로부터 쓰시마와 한반도, 규슈 사이를 오가는 상인들이 중심 마을인 하루노쓰지로 가기 전에 배를 정박시켰던 곳입니다. 만에 도착한 배는 얕은 하타호코 강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작은 배에 짐을 옮겨 싣고, 하루노쓰지의 선착장까지 1.5km 정도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. 하루노쓰지는 기원전 200 년경부터 350 년경까지 이키국의 왕도로 번성했던 곳입니다.

현재의 만에서 가장 특징적인 곳인 고지마 신사는 바다 및 어업과 관련된 신들을 모시는 신역입니다. 간조 때 바다에 나타나는 사주를 건너서 갈 수 있는 작은 섬에 있습니다. 만조 때는 거룻배를 타고 섬을 한 바퀴 돌아볼 수 있습니다.